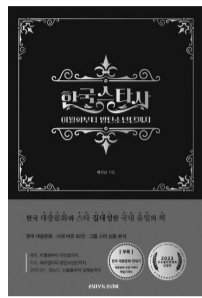


100년간 대중의 마음 사로잡은 스타들

한국 스타사-이월화부터 방탄소년단까지

배국남 지음

“지구 반대편에 살아가는 오스카 시상식은 TV로 보는 이벤트였는데 제가 직접 참석하다니 믿기질 않네요. 다섯 명의 후보는 각자 다른 영화의 다른 역할을 연기한 승리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단지 조금 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LA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영화제 시상식. 60년 가까운 연기 관록의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 (감독 정이삭)에서 ‘순자’ 역을 열연해 한국배우 최초로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후 소감을 밝혔다. 102년의 한국 영화사와 93년 오스카 역사를 새로 쓰는 의미 있는 아카데미 연기상 수상이었다.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SBS 슈퍼콘서트' 무대에 오른 방탄소년단(BTS)(2019년 4월). <연합뉴스>

“방탄소년단이 나를 구해줬다. 삶의 힘든 시기에 그들의 음악이 힘이 됐다. 이제는 내가 어려운 이들을 찾아갈 것이다.” 방탄소년단 ‘아이’인 외국 10대 소녀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었으나 BTS의 노래를 들으며 삶의 희망을 찾았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BTS를 ‘2019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했다.

배우 윤여정과 BTS의 전 세계적인 활약은 한류(韓流) 세계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한국 스타사’는 100여 년 동안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국 대중문화 스타들의 삶과 활동, 성과, 영향을 집대성한 노작(勞作)이다. 저자는 30년 기자 생활중 20년 넘게 방송과 영화 등 대중문화 현장을 누비면서 대중문화와 미디어 전반에 걸쳐 취재하고 글을 쓰고 있는 대중문화 전

문기자이자 대중문화 평론가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한류의 세계화로 한국 대중문화와 스타를 좋아하거나 연구하는 외국의 미디어와 전문가, 한류 팬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한국 대중문화와 스타를 개괄하고 한국 스타사를 정리한 저술과 연구물은 부재한 상황이다. ‘한국스타사-이월화부터 방탄소년단까지’를 펴낸 이유다”고 밝힌다. 크게 ‘스타와 스타시스템’, ‘한국 대중문화사와 스타’, ‘한국 대중문화 주도한 스타들’ 등 3장으로 구성했다. 1장은 대중문화 스타의 정의와 역할, 스타 시스템을 폭넓게 살핀다. 2장은 한국 대중문화사를 ▲대중문화 초창기(1876-1945) ▲대중문화 발전기(1945-1960년대) ▲대중문화 도약기(1970-1980년대) ▲대중문화 폭발기(1990-2020년대)로 구분해 시대별 대중문화 흐름과 스타시스템, 스타들을 개괄한다. 특히 100여년의 한국대중문화 역사에서 대중들의 뜨

거운 사랑을 받았던 배우와 가수, 코미디언-예능인 92명(그룹)을 다루는 3장은 스타들의 열전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영화역사의 여명을 밝힌 최초의 스타’인 이월화(1904-1933)와 ‘조선 최초의 직업가수’인 채규엽(1906-1949), ‘한국 코미디의 토대를 다진 만담 일인자’ 신불출(1907-1969) 등 한국 대중문화사의 초창기 스타들부터 요즘의 한류스타에 이르기까지 스타들을 아우른다. 책장을 넘기면서 시대별 대중문화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는 동시에 독자들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스타’들과 만나게 된다. 부록으로 ‘대중문화 연대기’와 ‘스타들의 출생지’를 수록했다. ‘영원히 여러분 가슴 속에 남는 배우가 되고 싶다’(배우 김지미)는 스타의 바람처럼 대중문화 스타들은 팬들에게 영원한 ‘별’로 빛난다. ‘한국 스타사’는 한류를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길라잡이를 특별히 한다. <신사우동호랑이>4만3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고양이 대학살=계몽주의는 우리가 부르고 싶어하는 것들의 집합이라는 목소리는 새롭다. 인류가 역사적 사료들을 주관적으로 판단해 분류하고, 이를 통해 ‘주류 역사’ 위주로 성찰해 왔다는 것이다. 책은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지향하며 농민들의 민담, 도시 안내서, 경찰 보고서, 전승되는 이야기 따위를 모아 민중적 역사를 성찰한다. 표제의 ‘고양이 대학살’도 마찬가지, 1730년대 인쇄공들이 파리 인쇄소에서 고양이를 교수형에 처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해답이 책에 담겨있다. <문학과지성사>2만2000원



▲명화로 읽는 독일 프로이센 역사=멀리 미술관에 가지 않고도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독일 통일의 주역인 프로이센 호엔촐레른 왕가의 역사를 살펴보고 과시적인 귀족의 모습을 통해 궁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발헬름 1세의 대관식 같은 역사적 사건부터 나폴레옹, 발헬름, 루이 14세 등 유럽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이 삽화 속에 실감나게 그려져 있다. <한경arte>1만6000원

▲한 방울의 살인법=독약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화학 물질은 무엇일까.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독극물에 얽힌 과학사를 이야기한다. 청산기리, 인술린, 스트리크린과 같은 생체분자들부터 플로늄, 칼륨 등 자연물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까지 다양한 예화를 들어 과학적 원리를 재미있게 설명한

다. 책은 1994년 8월 에든버러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독극물 사고, 19세기 식민지 인도에서 벌어진 촌극 등 흥미로운 실화들을 소개한다. <위즈덤하우스>1만8500원

▲MZ세대 한국생각=2-30대의 정치선거 영향력을 분석하는 정치평론서. 소위 ‘이대남’은 국민적힘을 지지하고 여성들은 민주당에 집중하는 이유를 분석한다. 저자는 ‘당별, 연령별 지지율을 데이터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도층과 무당층을 분석하기에 이른다. 또 조국 사태와 2020 총선을 말미암아 2024년 총선을 예측하고, MZ세대의 향방을 ‘젠더선거’, ‘세대전쟁’과 같은 키워드로 분석한다. <아마존북스>2만 원

어린이·청소년 책



▲여름빛=오일 파스텔로 그려낸 여름의 오색찬란 빛깔들. 매미의 울음소리나 햇빛의 뉘네처럼 색채 이미지로 그려내기 어려운 대상들을 삽화에 담았다. 여름 휴가를 떠나는 아이의 여정을 통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유려한 노란색 꽃, 풀잎의 초록색, 붉은 노을이 그려내는 색감까지, 책에는 여름의 무수한 빛깔들이 담겨 있다. <세계잡>1만6000원

▲1984=만화와 소설 원작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래픽 노블. 조지 오웰의 원작이 자비에 코스테의 각색과 그림을 통해 되살아난다. 날카로운 이미지와 환상적인 각색은 디스토피아 문학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책은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 인민을 통제하는 ‘빅 브라더’의 존재를 통해, 전체성과 개인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다. <아름드리미디어>3만2000원

▲오리털 흙씨=오리털 패딩이나이불이 동물 윤리에 어긋난다는 메시지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오리들이 깃털을 빼앗기고 슬퍼하자 민들레 흙씨가 오리의 몸을 감싼다. 가벼워져 하늘을 날게 된 오리는 환히 웃으며 노란 꽃밭을 비행한다. 아이들의 동심을 일깨우고 희망을 품게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민들레의 꽃말 ‘행복’과 ‘감사’를 주제의식에 담아내 긍정적 각색은 디스토피아 문학의 정수를 느낄

유물에 깃들여 있는 송고한 기운 가볍고 청량하게 즐기기

박물관 소풍-아무때나 가볍게

김서울 지음

아무래도 박물관보다는 미술관으로 발길이 닿는다. 박물관은 조금은 고루하고, 무겁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까. “유물에 깃들여 있는 송고한 기운을 가볍고 청량하게 즐기는 사람”이라는 글귀를 발견했을 때 흥미가 일었다. 책 제목도 ‘박물관 소풍-아무 때나 가볍게’다. ‘뮤지엄서울’, ‘아주 사적인 궁궐 산책’ 등을 펴낸 김서울의 이번 책은 “굳이 예습하지 않고, 국보나 보물이 무엇인지 머리 속에 저장해두지 않고 ‘영성찬 마음’으로 박물관을 즐기는” 저자와 함께 떠나는 가벼운 소풍이다. “같은 박물관이어도, 유물의 시대나 양식이 같아도, 지역마다 유물의 낯빛이 달라진다”고 말하는 저자는 추



석, 설날, 신정을 제외하고 1년 내내 문을 여는 데다 무료 입장을 고수(일부 기획 전시는 유료)하는 전국의 국공립 박물관 10곳을 소개한다. 전통회화와 보존처리를 전공한 그의 전문 지식과 편한 글쓰기가 어우러져 책은 흥미롭게 읽힌다. 책은 각 박물관 소개와 함께 재치 있는 감상평을 곁들인 고화질의 유물 화보, 주변 볼거리와 맛집을 소개한 ‘김서울의 동선’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져있다. 더불어 고고학자, 학예사, 보존처리 전문가, 시설 관리 노동자 등 박물관과 밀접한 사람들에 대한 칼럼도 실었다. ‘청자의 속삭임이 들린다’라는 부제가 달린 국립광주박물관 여행에서는 “오묘했다가 귀여웠다가 기분이 넘쳤다가 화려하기도 한 도자기들”을 만난다. 강진 가마터에서 만들어진 ‘청자 투합’,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다정한 얼굴을 만나는 ‘청자 삼강 버드나무 인물무늬 매병’, 윤두서거 그린 ‘심득경 초상’, 허련의 ‘무이구국도’가 추천 유물이다. 이어지는 작가의 동선은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역사

민속박물관, 금남로 일대, 궁전제과와 사찰음식점 ‘수자타’다. 책에서는 또 ‘산책과 소풍의 성지’ 국립대구박물관, ‘석탑에서 태어난 막내’ 국립익산박물관, ‘화력 조선의 스펙터클’ 국립진주박물관 등을 만날 수 있다. 이 책은 읽는 재미 뿐 아니라, ‘보는 재미’도 있다. 책 만들새가 인상적인데, 무엇보다 기존 책에서는 보기 어려운 ‘아라바나 서체’를 사용해 한참을 들여다보게한다. 또 시원시원한 유물 화보, 부록으로 실은 김서울 동선 편집도 눈길을 끈다. 오래 전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들고 여행을 떠났듯, 김서울의 ‘박물관 소풍’과 함께 박물관 여행을 떠나도 좋을 것 같다. 이번 책은 출판사 마티가 펴내는 ‘온(on) 시리즈’의 네 번째 권이다. 앞으로 ‘일인칭 가난’ (안온), ‘수선하는 삶’ (북태와 한군), ‘미술 사는 이야기’ (유지원) 등이 출간될 예정이다. <마티>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절찬 판매중

이방인

이기원 지음

문이당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충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